

함평군, 2025년 연말 시상식 성료... 희망찬 도약 다짐

전남 함평군이 2025년 한 해 군정 성과와 군민·공직자의 노력을 돌아보며, 내년도 군정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함평군은 29일 "2025년 연말 시상식"이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과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연말 시상식은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대외적으로 함평군의 위상을 높인 공직자와 군민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성원 간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성과를 공유하며 내년도 군정 추진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농촌진흥청 표창(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기술센터) ▲2025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종합평가 ▲2025년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장관·도지사 및 유관기관 표창 9건과 함께, 2025



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10개 부서에 대해 군수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유공 ▲2025년 농가소득 창출 이바지 유공 ▲2025년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등 군정 발전과 대외 성과 창출에 이바지한 군민 7명에게도 전라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아울러 ▲2025년 기술보급사업 ▲식량작물 및 과학영농 분야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농정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3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 및 ▲생활권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한 공무원 2명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함평군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 온 군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2026년에도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실천하며, 희망찬 함평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순천시 매곡동, 외국인 한국어교실 2025년 따뜻한 마무리

전통극 관람으로 한국문화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

순천시 매곡동(동장 선순복)은 지난 26일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외국인 주민 30여 명과 함께 극단 '지피지기'의 전통극 「이수일과 심순애」 연극공연을 관람하며 2025년 한국어교실 운영을 뜻깊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매곡동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시간인 '지피지기'의 전통극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생활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끼며 큰 호응을 보였다.

공연 관람 후에는 극단 단원들과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시간도 이어졌으며 단원들의 노래와 춤, 외국인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지며 언어와 국적을 넘어선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공연을 관람한 인도 출신 군잔굽타씨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연극이라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지만, 이야기와 표정, 음악

덕분에 이해하기 쉬웠다"며 "한국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를 더 잘 알게 됐고,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순복 매곡동장은 "외국인 한국어교실은 한 해 동안 한국어 교육(28회)은 물론, 문화 체험과 소통 프로그램(6회)을 병행하며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해 왔다"며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한국어교실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입증했으며 특히 강사의 친절함 지도, 실생활 중심의 수업 내용,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 수강생들이 제안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수업 운영 시 적극 반영·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형이 고향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있기를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고 천병일 씨 유가족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고(故) 천병일 씨의 동생 병현 씨가, 추모 1주기를 앞둔 22일 영암군에 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했다.

올해 1월 병현 씨는 큰형인 병갑 씨와 함께 영암군에 둘째 형인 고인의 이름으로 5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했고, 담례포도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

당시 병현 씨는 "고향을 좋아했던 형을

누군가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며 뜻을 전했다.

이어진 이번 기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형이 고향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한다"고 밝혔다.

천 씨 삼형제는 영암읍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던 부모님 슬하에서 고등학교까지 영암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영암 밖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던 고



인은, 수시로 고향 영암을 찾아 부모님의 방앗간 일을 도와왔다고 한다. 삼형제 가운데서도 고향 사랑이 남달라

꾸준히 고향 친구와 이웃 등을 살피며 단독한 인연을 이어왔다고 알려졌다. 영암/김희선 기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영광노점상인회 이웃돕기 성금 70만 원 기탁

영광군은 영광노점상인회에서 12월 26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7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영광노점상인회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해 구성된 단체로, 상인들의 권익 보호와 영업환경 개선뿐 아니라 매년 정기적인 나눔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상

인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이번 기부는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지역 내 나눔 실천 분위기를 제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군은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영광노점상인회 관계자는 "노점상인도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년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상인회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규 사회복지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나누기 위해 정성을 모아주시는 영광노점상인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군도 지속적인 복지 제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전남학생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세계를 읽는 눈' 키우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 초빙 특강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은 26일 전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초청,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남학생공공외교소스 프로그램을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기홍 대사는 ▲ 1945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와 변화 과정 ▲ 미·중 전략경쟁 등 강대국 간 갈등 심화 ▲ 북극 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의 파급 효과 ▲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방향과 대응 전략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외교력과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K-이니셔티브' 공공외교 정책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도 소개했다.

정 대사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강연이 학생들이 세계를 향한 시

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외교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외교 전략, 한류의 지속가능성과 소프트 파워의 미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문제 등 국제 이슈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외교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앞으로 국제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외교와 국제협력 현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은 학생들이 국제 정세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강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